

# Zola 생운 1

-개념의 모든 것-

n회독을 위한

## I. 자료 교재



오르비 인강 교재(<https://class.orbi.kr/>)

## 교재 구성의 ‘특이’ 사항과 Zola의 의도

Zola 생운 1의 교재는 총 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 자료 모음

II. 문제 모음

각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I. 여러분이 챙겨가야 할 교재는 《자료 모음》입니다.

n회독 하십시오! Zola의 자랑거리이자 현강생(특히 고4 이상)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자료집입니다. 현 교육과정의 5종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물론이거니와 13년부터 시작된 생운의 교과서, 평가원 및 연계교재(ebs 수특과 수완) 자료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원전과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적절한 논문이나 대학 교재들까지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와 함께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실었는데, 여기 실린 문제들은 중급 이상의 난이도들입니다(최상급 다수). 그래서 반드시 개념 공부(백지 복습) 후에 문제를 풀고, 처음 풀 때는 문제에 답을 표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연습장에 답을 표시하든, 여백에 표시하든 하세요). 최소 2번 이상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 주: 교과서 자료를 언급할 때 현행 교육과정(15 개정)은 교과서 출판사 ‘만’ 언급하였고, 이전 교육과정의 경우 출판사-해당 교육과정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예) 비상교육 → 15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

비상교육-09개정 → 09 개정 비상교육 교과서임(09 개정은 16학년도~20학년도까지)

### II. 《문제 모음》은 활용도가 높은 평가원 기출들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시중의 교재들을 보면 사설 문제를 바탕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비추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좋은 문제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문제는 평가원입니다. 여기에 학습에 도움될 만한 교육청 문제들과 ebs 및 사설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을 연습시키기 위해 ‘주관식’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본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만으로도 시중의 기출 문제집 1권 분량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공부량에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언급한 자료 부분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기본과 심화 모두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 III. 개념 교재는?

Zola가 제공하는 개념 교재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필기 노트가 개념 교재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개념 정리 부분에 별표나 밑줄을 긋고 외우는 것으로 개념 공부를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의 참고서(ebs 포함)를 n회독을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개념이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개념 정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교재는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개념 노트를 만드세요. 만드는 법은 탐구 공부법 안내 인강인 ‘망하는 생운, 성공하는 생운’ 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의 개념 노트를 만들고 그것을 수능 때까지 백지복습 및 n회독 하시길 바랍니다.

Zola의 교재가 그리고 강의가 올해 여러분의 입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공+즐공=대박!!!

## 교재 목차

\* 번호: 대단원-순서

예) 1-1 ⇒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라는 의미임.

- 1-1: 윤리학의 구분 --- 5
- 1-2: 동양 윤리+자연관 --- 10
- 1-3: 서양 윤리 --- 23
- 1-4: 도덕적 추론 --- 45
- 1-5: 토론, 밀의 자유론 --- 48
  
- 2-1: 죽음관 --- 52
- 2-2: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뇌사, 생명 복제, 유전자 치료, (자살, 동물 실험) --- 57
- 2-3: 성·사랑 --- 61
- 2-4: 결혼과 가족의 윤리 --- 65
  
- 3-1: 직업 사상가 --- 69
- 3-2: 직업 윤리(기업, 전문직, 공직자) --- 75
- 3-3: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니부어) --- 78
- 3-4: 사회 정의의 분류(아리스토텔레스) --- 84
- 3-5: 분배 정의 --- 87
- 3-6: 소수자 우대 정책(차별과 역차별) --- 104
- 3-7: 교정 정의(형벌, 사형제) --- 106
- 3-8: 국가와 시민의 윤리(1) --- 120
- 3-9: 국가와 시민의 윤리(2) 시민 불복종 --- 137
  
- 4-1: 과학기술과 윤리 --- 147
- 4-2: 정보윤리+매체윤리 --- 151
- 4-3: 자연과 윤리(서양의 자연관) --- 154
- 4-4: 환경 문제와 미래세대 ---178
  
- 5-1: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 183
- 5-2: 의식주 윤리 --- 190
- 5-3: 다문화 윤리 --- 195
- 5-4: 종교와 윤리 --- 198
  
- 6-1: 갈등과 소통, 민족 통합 --- 205
- 6-2: 국제관계와 국제분쟁 --- 210
- 6-3: 국제 평화와 정의 전쟁 --- 215
-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 225
  
- zola amazing 답 + Zola Guide --- 235

## 6-4: 세계화와 해외 원조

☞ Zola Guide (1) 해외 원조는 싱어와 롤스 공부를 구분해야 함. 싱어는 개념을 암기한 후 응용을 하면 쉽게 접근 가능함. 하지만 롤스는 개념 암기뿐만 아니라 롤스만의 지식 공부도 병행되어야 함. (2) 싱어와 롤스 이외에는 특별히 지식 공부는 필요없을 듯.

### [교과서 읽기] 미래엔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외 원조가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다음 글을 읽어 보자.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은 이익을 고려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에 관하여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통을 덜 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싱어, 『실천 윤리학』-

윗글에서 싱어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차별없이 도움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빈곤에 따른 개인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해외 원조의 목적은 가난과 굶주림에 따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다. 싱어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이므로 도움을 줄 대상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경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여 해외 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적은 독재나 착취와 같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빈곤을 발생시키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원조를 통해 그들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질서 정연한 사회란 독재나 착취와 같은 불합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선되어 정치적 전통, 법, 규범 등의 문화가 적정한 수준에 이른 사회를 말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복지 향상을 원조의 목적으로 하는 싱어와 대비된다.

반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한 싱어와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자 윤리적 행위라고 보았다.

### [참고] 비상교육, ‘윤리와 사상’, 탐구활동

등굣길에 작은 연못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각을 걱정하여 아이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허락할 수 있는가? ... 공리적 관점에서 세계 시민주의를 지향하는 싱어는 우리가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기아로 죽어 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해외 원조를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뿐더러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국제주의자인 롤스 역시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찬성한다.

■ 세계 시민주의: 사람들이 민족이나 국가 같은 지역 공동체에 속한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를 하나의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세계 시민으로 살 것을 주장함

■ 국제주의: 국가나 민족 등을 전제로 하여, 국가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개인을 단위로 하는 세계 시민주의와 구별된다.

[자료 읽기] 해외 원조에 대한 의무적 입장들(출처: 교과서, ebs, 원전)

### 1. 토마스 아퀴나스

재화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잉여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자연법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주어야 한다.

### 2. 롤스("만민법" 등)

(1) 나는 만민법(Law of Peoples)을 국제법 및 국제관행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되는 옳음과 정의에 기초한 특수한 정치관의 의미로 쓰려 한다. 그리고 만민의 사회는 상호관계에 있어서 만민법의 이상과 원칙들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려 한다. 이들은 각자 하나의 국내 정부에 속해 있는데, 이 정부는 입헌주의적 자유적 정부일 수도 있고, 비자유적이지만 적정수준의 정부일 수도 있다. ... 나는 자유적 국민들과 적정수준의 만민 모두를 질서정연한 만민으로 부른다.

(2)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입헌적 자유주의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원조의 목적은 그러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 **고통받는 사회(burdened society):**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그리고 종종 질서 정연해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물질적, 과학 기술적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

■ **질서 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 구성원들의 선(善)을 증진해주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 자유주의적 사회와 적정 수준의 사회가 있다.

(3) 만민에게는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4)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duty)가 있다. 그렇지만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하거나 최선인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분배 정의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나 목표, 차단점(cut-off point)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을 겪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수준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 ✎ Zola Guide \* 참고로 롤스에 따르면 질서 정연하지 않은 국가 중에 인권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국가들이 있다. 이들을 무법 국가라고 하며, 이들은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법 국가에 대한 제시문은 뒤에 나온다.

(5)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다. ... 희망컨대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기근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에 속한 유력한 정부들에게 효과적인 방향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다. ... 인권의 존중은 ... 여성을 위한 평등한 정의의 요소들을 확립하는 것이다. ... 여성에게 투표권, 참정권, 교육을 받고 활용한 권리,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부여했다. ... 기본적인 정의의 요소들은 건전한 사회정책의 본질적 요소로 증명되었다.

(6)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적이 달성되면, 심지어 현재의 질서 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들은 강제적으로 (paternalistically; 부정주의적으로, 온정주의적으로, 온정적 간섭주의로) 행위해선 안 되며, 원조의 최종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히 계획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7) 고통받는 사회가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도록 돕는 것에 있어서 손쉬운 비결은 없다. 이 일에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이 배제한다. 그러나 특정한 충고는 유용할 수 있는데 고통받는 사회는 여성의 근본적인 이익에 당연히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 나올 것이다. 모든 종류의 질서 정연한 사회는 인권을 지지하며, 이러한 질서 정연한 사회는 최소한 적정한 협의 위계 체제 또는 그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8) 나는 한 국민의 부의 원인들과 국가가 취하는 형식들은 그들의 정치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근면함과 협력적인 재능들, 그리고 그들의 정치적 및 사회적 제도들의 기본 구조를 지지하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전통들에 있다고 믿는다. 결정적인 요소는 정치문화, 정치적 덕목, 그 국가의 시민사회, 구성원의 성실과 근면, 혁신능력 등등이다.

(9) 원조의 의무에 따르면 어떤 세금도 없으며, 그것이 옳아 보인다.

☞ Zola Guide 원조의 의무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조의 원칙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목표를 규정하지 않는다.**

(10) 만민법은 불평등이 항상 부정의한 것은 아니며, 불평등이 부정의한 경우는,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그리고 만민간의 관계와 국가의 구성원들간의 관계에 관한 부정의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 자유적 국내 사회에서 불평등의 부자와 빈자간의 간격은 상호성의 기준이 허용하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없다. 그래서 최소 수혜자는 그들의 자유를 현명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리고 합당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전목적적(all-purpose)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만민들의 사회의 기본 구조에서 일단 원조의 의무가 충족되고, 모든 만민이 자유주의적 또는 적정수준의 정부가 작동하는 상황을 가지게 된다면, 상이한 만민간의 평균적 부의 차이를 다시금 좁혀야 할 이유는 없다.(pp.172~173)

(11) 만민법은 모든 사회가 정의로운 제도들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의 최종적인 정치적 목적은 올바른 이유로 완전하게 정의롭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단 그 목적을 이루면,] 만민법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목표를 규정하지 않는다.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어떤 사회의 요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으며, 또는 사회들 간의 물질적인 불평등을 축소시키려는 어떤 사회의 요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도 전혀 없다. ... 만민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 정의와 안정성의 문제이다.(pp.180~182)

(12)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국민들에게 익히 알려진 전통적인 정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만민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들의 자유와 독립성은 다른 만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2.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3. 만민은 평등하며 자신들을 구속하는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이다.
4. 만민은 불간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만민은 자기방어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자기방어 이외의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는 없다.
6.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7. 만민은 전쟁 수행에 있어 특별히 규정된 제약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8.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 Zola Guide (1) 롤스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만민)가 자유로운 또는 적정 수준의 체제를 확립할 때, 평화와 정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에 질서 정연한 만민들이 합의하고 정치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면 국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원칙 4/5/7은 정의 전쟁에 대한 내용임. ‘정의 전쟁’ 주제 자체는 출제 가능하지만 독해로 풀 수 있을 것임.

☞ Zola Guide 아래 두 제시문은 ‘무법 국가’에 대한 제시문임. 확인해 둘 것!

(13) 인권들의 정치적 힘(도덕적 힘)은 모든 사회들에 확대되며, 이것들은 무법 국가를 포함한 모든 만민과 사회들에 구속력을 발휘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무법국가는 비난받아야 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강제적 제재와 심지어 내정간섭을 받을 수 있다. ... 우리가 자유적이며 적정수준의 만민을 위한 만민법을 개진해온 것처럼, 이러한 만민은 단순히 무법국가들을 관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무법국가에 대한 관용의 거부는 자유주의와 적정성의 결과이다. 만약 정치적 자유주의의 정치관이 건전하다면, 우리가 만민법을 개진해온 단계들이 건전하다면, 만민법 하에서 자유적이고 적정수준의 만민은 무법국가들을 관용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p.127~128)

(14) 상대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들의 장기목표가 무법국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 3. 상어

(1) 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양식과 깨끗한 식수, 비바람을 피할 보금자리,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어 지지 않은 것이며,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나는 절대빈곤과 그에 따른 배고픔, 열악한 영양상태, 주거의 부족, 문맹, 질병, 높은 유아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등을 나쁜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빈곤을 감소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풍요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만일 이 두 가정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원칙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의무를 갖게 된다. 도움을 주는 행위는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그러한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다.

(3)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4) 자기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를 기부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은 아니다.

(5) 내가 강연을 하러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가 얇은 연못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라. 나라면 쉽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신발과 바지에 흙탕물을 뒤집어써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집에 가서 신을 바꿔 신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이다. 강연은 취소해야 할 것이며, 또 신발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가치보다 그런 작은 고려 사항들을 더 중시한다면 그것은 추한 일이 될 것이다. …… 내가 돕는 사람이 나한테서 10야드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만 마일 떨어져 있는 벙골인인지가 나에게서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6)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의 5퍼센트를 세계 빈곤 퇴치 활동에 내놓는다고 해서, 기부자의 행복이 손상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출 계획을 다소 수정하기는 해도 그런 수정의 결과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이 없어 새 옷이나 새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또는 집을 새롭게 꾸미지 못한다고 남들이 자신을 깔보지 않을까 싶어 돈을 쓰던 것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식으로만 소비할 좋은 이유가 생겼다. 이제 돈을 더 잘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다.

(7) 정부를 압박하여 세계의 빈곤한 이들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그러한 원조가 가능하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책무에 따라 행위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원조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고서도 아주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8) 사람들은 왜 굶주리는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의 농부들이 키운 곡물을 살 만한 여유가 없다. 가난한 나라의 농부들은 개량 종자나 비료나, 우물을 파고 물을 끄는 데 필요한 기계를 살 만한 여유가 없다. 부유한 나라에서 약간의 부를 가난한 나라들로 옮김으로써만 상황은 변화될 수 있다.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지금보다 더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기 때문에, 절대 빈곤과 그에 수반하는 열악한 영양 상태, 나쁜 건강 그리고 죽음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정부에만 해당되는 결론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개개인에게도 해당한다. 왜냐하면 우리들 각각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9) 불평등은 종종 상대적인 것이지만 절대 빈곤국의 빈곤은 다른 어떤 국가의 부와 비교한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다. 절대 빈곤국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것은 분명 상대적인 빈곤을 줄이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우선적인 일이다.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을 가지고 실로 곤궁한 타인의 복리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의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10) 우리는 빈곤한 나라들을 도와서 그 나라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정부를 고무하여 토지개혁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개선하고, 여성들을 교육하여 단순히 아이 낳는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11)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세계의 모든 이의 복지에 똑같은 책임을 가진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조의 책무에 찬성하는 논변이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절대빈곤에 처해있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을 희생함이 없이 도울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자신의 친척이 절대빈곤에 빠지도록 버려두는 것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을 희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훨씬 전에, 가족과 공동체의 책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이나 공동체를 적당히 우선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우리는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책무를 갖는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극단적인 빈곤을 감소시킬 전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심지어는 증가시킬 수도 있는 전망을 갖는 희생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가 우리의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책무는 없다. 이는 이러한 나라의 빈곤한 시민들에게는 매우 고약할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원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덧붙이자면, 같은 원칙이, 여성이 교육받는 것을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이, 원조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에도 적용될 수도 있다.

(13) 롤스는 “만민법”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 즉 질서 정연하게 되는 데 필요한 정치적·문화적 전통과 인적 자본, 노하우 그리고 흔히 물질적·기술적 자원이 결핍된 사회를 도울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무는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원조의 요건에까지 확장되는데, 이때 롤스가 의미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적인 정의 개념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도록 기획된 사회이다. 무엇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롤스는 각 사회가 적절한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는 “만약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지배된다면, 자원이 너무나 희소해서 질서 정연할 수 없는 사회는-한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이러 추측은 옳을 수도 있고 그를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이 현재 없는 나라에 사는, 기아나 영양실조 또는 지금 당장 쉽게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죽어가는 개인들의 곤경을 방치하기 때문이다.

☞ Zola Guide 싱어가 롤스의 입장을 비판하는 글임.

[중요] **절대 빈곤**과 **민주주의**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343[문제]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해외 원조시 주의할 점을 말하시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절대 빈곤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파악한다.

세계적으로 비참한 기근의 역사를 볼 때,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한 민주 독립국가에서는 본격적인 기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년 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및 그 밖의 독재국가에서 발생한 기근이나, 1930년대 소련 스탈린 정권 치하의 기근, 1958년에서 1961년 사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따른 중국의 기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식민지 시대의 아일랜드와 인도의 기근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대체로 의회에 야당 세력이 없었고, 복수정당제에 의한 선거도 치러지지 않았으며 언론의 자유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심각한 오류를 지닌 정책들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속되었다. 현대의 대표적인 기근인 북한과 아프리카의 기근도 이와 똑같은 경우이다.

반면에 1973년 인도, 1980년대 초반의 짐바브웨와 보츠와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 그밖의 자연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기근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언제나 야당과 자유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근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 **절대 빈곤: 생활필수품을 획득할 수 없어 최저의 생활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미래엔)**

**zola 풀어!**

344)[ebs 활용, 주관식] 해외 원조에 대한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공기 속에 살고 있고, 지구적 차원의 지식과 미래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역과 국가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구와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을: 어떤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그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갖는다. 빈곤한 사람을 돕는 일은 윤리적 의무가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자발적 행위로 바라봐야 한다.

<보기>

- ㄱ. 갑: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 ㄴ. 갑: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해야 한다.
- ㄷ. 을: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빈곤 국가를 지원해야 한다.
- ㄹ. 을: 해외 원조는 자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45)[ebs 활용, 주관식] 갑, 을의 입장에서 병의 주장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갑: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 것이다. 우리는 자발적 동의 없이 타인을 도울 필요가 없다.  
 을: 내가 돕는 사람이 나한테서 10야드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만 마일 떨어져 있는 벙골인인지가 나에게서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병: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가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적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는 절대적인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도의 한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므로, 원조의 목적은 제도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보기>

- ㄱ. 갑: 국내의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 ㄴ. 갑: 자신의 고통과 타인의 고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ㄷ. 을: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행복 증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ㄹ. 을: 사회의 정치 문화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원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46)[ebs 활용, 주관식]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셈!

천연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조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단지 자원의 배분만으로는 기본적인 정치적·사회적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무능한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다.

<보기>

- ㄱ. 경제적 부의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들도 인권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
- ㄴ. 빈곤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사회의 원조가 필요하다.
- ㄷ. 적정 수준의 정치 제도를 가진 자원 빈국은 자국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 가능하다.
- ㄹ. 국제 사회의 만민은 질서 정연한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원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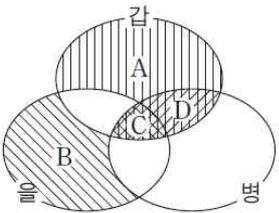
347)[ebs+교육청 활용, 주관식]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끝!!

질서 정연한 만민이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정치 문화를 변경하도록 도와주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비법은 없다. 돕는 방법은 강제력은 배제되며, 자금 투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특별한 종류의 충고는 유용할 수 있다. 분배 재원만으로는 부정의를 교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강조는 국민의 복지에 무감각한 통치자들의 행동을 바꾸도록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 ㄱ. 원조 대상국에 제공된 원조에 대한 조건으로 인권 존중을 부과할 수 있다.
- ㄴ.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인권 강조는 기아로 인한 고통 방지에 도움이 된다.
- ㄷ.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 ㄹ. 원조 대상국의 복지 수준 향상은 원조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목적일 수는 없다.

348)[ebs 활용, 주관식]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붙여?

(가)	<p>갑: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p> <p>을: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며, 소유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나아가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남을 돕는 일에도 적용된다.</p> <p>병: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는 보편적 윤리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다. 원조의 의무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비롯되며,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돕는 것이 의무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범례〉</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원조는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다.
- ㄴ. B: 원조는 자원을 국간 간 재분배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 ㄷ. C: 원조는 결과에 상관없이 선의(善意)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 ㄹ. D: 원조는 인도주의적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349)[17-3교-20] 갑, 을, 병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고통 받는 사회를 도와야 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조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병: 자유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원조를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갑이 을에게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빈곤에 원조를 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②	갑이 병에게	자유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원조의 주체임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갑에게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원조의 목적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을이 병에게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원조의 주체임을 모르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빈곤한 사람에 대한 원조는 자발적 선택 사항임을 간과하고 있다.

350)[19-10교-7,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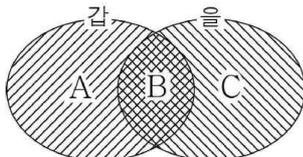
갑: 전 지구적 빈곤을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원조의 목적은 아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보기>

- ㄱ. 갑: 원조 주체는 가까운 지역의 빈민부터 도와주어야 한다.
- ㄴ. 갑: 부유한 국가의 절대 빈민도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 을: 비인권적이고 공격적인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 ㄹ. 갑, 을: 절대 빈곤층의 처지 개선은 원조의 목적이 아니다.

351)[22-3교-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세용~

(가)	<p>갑: 원조의 의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는 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p> <p>을: 원조의 의무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이 불리한 여건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p>
(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div>

<보기>

- ㄱ. A: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한다.
- ㄴ. B: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ㄷ. B: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 ㄹ. C: 질서 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

352)[20-3교-10, 주관식]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갑, 을,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세용~

(가)	우리는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에 기초하여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국가적인 경계를 넘어서 원조를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	<p>갑: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없다. 우리는 배려자로서 우리 앞의 타자를 먼저 만나야 한다.</p> <p>을: 원조는 질서 정연한 사회체제를 설립하려는 만민들을 돕는 큰 기획의 한 방편이다.</p> <p>병: 개인은 정당하게 얻은 소유물에 대해 타인의 고통과 무관하게 절대적 소유 권리를 지닌다.</p>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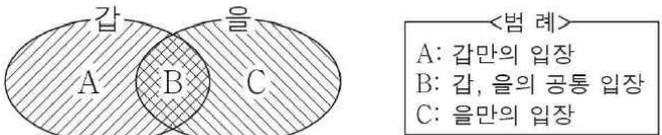
- ㄱ. 갑은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원조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ㄴ. 을은 공리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ㄷ. 병은 원조를 위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해야 함을 간과한다.
- ㄹ. 갑, 을은 원조 주체가 개인으로 한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353)[21-10교-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p>갑: 원조의 대상을 친소 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조는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이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p> <p>을: 원조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p>
--

- ① 갑: 원조는 고통 감소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실시해야 한다.
- ② 갑: 원조는 각국의 부의 수준이 같아질 때까지 실시해야 한다.
- ③ 을: 원조 대상국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로 국한된다.
- ④ 을: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의 사용도 허용된다.
- ⑤ 갑, 을: 원조의 주체는 민주적이면서 부유한 국가로 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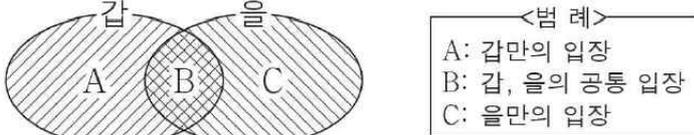
354)[20-4교-2, 주관식]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보셈.

(가)	<p>갑: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p> <p>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원조의 대상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인지에 관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p>
(나)	

<보기>

- ㄱ. A: 빈곤하지만 질서 정연한 사회는 원조대상에서 제외된다.
- ㄴ. B: 자선의 차원을 넘어 의무의 차원에서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
- ㄷ. B: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빈곤국의 복지수준 향상에 있다.
- ㄹ. C: 공리의 원리에 따라 인류의 부를 균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355)[21-3교-11, 주관식]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주세요~

(가)	<p>갑: 고통받는 사회가 빈곤에 처한 결정적 요소는 정치 문화의 결함이다. 원조를 통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편입하도록 도와야 한다.</p> <p>을: 세계를 지금 이대로 방치한다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도 전에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원조를 해야 한다.</p>
(나)	

<보기>

- ㄱ. A: 원조의 목적은 대상국이 자유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다.
- ㄴ. B: 원조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마땅히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이다.
- ㄷ. B: 어떤 사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원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ㄹ. C: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해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356)[23-4교-18 활용, 주관식]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p>갑: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한다.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p> <p>을: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공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민들을 도와야 한다.</p>
---

<보기>

- ㄱ. 갑: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
- ㄴ. 갑: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하여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 ㄷ. 을: 원조가 산출할 결과를 고려하여 원조의 대상을 정해야 한다.
- ㄹ. 갑과 을: 원조는 윤리적 의무이다.

**zola amazing 답 + Zola Guide**

[주의] 아래에 

50%	28%	8%	4%	9%
-----	-----	----	----	----

와 같이 제시된 것은 선지 ①~⑤의 정·오답률(메가스터디 공개 자료)임. 단, 필요한 경우에는 ebsi 통계와 종로 내부 통계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문항 분석할 때 참고하시길 바람. 오답률이 15% 넘어가는 선지들은 주의깊게 살펴보고 15%보다 낮은 선지들은 별도의 분석없이 가볍게 넘어가도 됨.

- 1) 기술
  - 2) 기술
  - 3) 기술
  - 4) 규범. 이론과 실천 중에서는 이론쪽이 강함.
  - 5) 규범. 이론과 실천 중에서는 이론쪽이 강함.
  - 6) 규범. 이론과 실천 중에서는 이론쪽이 강함.
  - 7) 메타
  - 8) 메타
  - 9) O
  - 10) O
  - 11) O
  - 12) O
  - 13) ① 규범(이론의 성격이 강함), ② 메타, ③ 기술, ④ 메타, ⑤ 규범(실천의 성격이 강함)
  - 14) □
- ☞ Zola Guide A-기술 윤리학, B-규범(이론) 윤리학

- 15) ③
- 16) □, □

**[설명]**

(가):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 규범 이론 윤리학  
 (나): 도덕적 언어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삼는다. ⇒ 메타 윤리학  
 (다): 실제적 도덕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 규범 실천 윤리학  
 ㄱ. (가): 생명 복제를 허용해야 하는가? ⇒ 규범 실천 윤리학  
 ㄴ. (나): 인생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 ⇒ 규범 이론 윤리학  
 ㄷ. (나):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 메타 윤리학  
 ㄹ. (다):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 규범 이론 윤리학  
 ㅁ. (다):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의무인가, 자선인가? ⇒ 규범 실천 윤리학

- 17) ㄱ, ㄴ, ㄷ, ㄹ
- 18) 유
- 19) 불
- 20) 도
- 21) 불교를 가장한 사기꾼. 아무 사상도 아님
- 22) 도
- 23) 도
- 24) 도
- 25) 불
- 26) 모두
- 27) 모두!!!
- 28) 도
- 29) 유
- 30) dog voice~도가 아님. 도가를 가장한 틀린 문장

☞ Zola Guide 유·도·불 모두 '도에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함

- 31) 아무 것도 아님. 불교를 가장한 험~임
- 32) 도
- 33) X
- 34) X

☞ Zola Guide 불교는 불성을 타고나는 것으로 봄. 따라서 본성을 생성(형성)하는 것이 아님.

- 35) 유
- 36) 도
- 37) 도
- 38) 도

- 39) 도  
 40) 도  
 41) 도  
 42) 유  
 ☞ Zola Guide '의리에 맞는 도리'가 핵심이네요. 의리는 인의예지의 '의'입니다. 앞 부분을 도가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도가로 확정짓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도가면 의리 인의예지에 맞게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죠.
- 43) 도. 참된 사람=진인. 삶을 받아도 기뻐하고 잃어도 기뻐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44) 도(ebs 수완)  
 ☞ Zola Guide 이 문장이 도가인 부분을 추론해보자면 '공경으로써 효도하기는 쉬워도'에서 '공경으로 효도'하는 것이 유가의 입장임. 유가의 효는 쉬운 것임. 그런데 유가에서는 공경으로 효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수양해야 함. 따라서 유가의 입장에서 공경으로 효도하기가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함. 결국 유가의 '효' 정도는 쉬운 건데 유가 애들이 어렵다고 징징거리는 것을 비판함.
- 마지막에서 '어버이를 잊기는 어렵다'에서 '잊는다'는 좌'망'으로 보면 됨. 즉 인간적인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좌망)은 쉽지 않음. 따라서 유가의 '효'보다 도가의 '좌망'이 더 어려운, 상급의 수양법임.
- 45) 유(맹자)  
 46) 불  
 47) 유  
 48) ① 불, ② 도, ③ 해당사항 없음(서양의 기계론), ④ 유, ⑤/⑥ 유·도·불 모두  
 49) ③  
 ☞ Zola Guide 정답률 90%의 문제임. 공부'만' 착실히 하면 됨. 핫팅~~~
- 50) ② 

4%	92%	3%	1%	0%
----	-----	----	----	----
- 51) ③ 

9%	4%	64%	6%	17%
----	----	-----	----	-----
- ☞ Zola Guide ③을 고르지 못해도, 나머지 오답 선지 4개를 확실하게 제낄 수 있어야 함. 오답 선지들을 잘 확인해 둘 것.
- 52) ㄱ, ㄴ, ㄷ(22년 ebs 수특 참고함)  
 ☞ Zola Guide 'ㄹ'이 출제되면 최고 난이도가 될 것임. 실제로 운사는 한 번 출제된 적이 있고, 다들 전멸 당했음. 도의 관점에서는 귀천이 없는데, 다른 것의 관점에서는 귀천이 있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됨.
- 53) ㄱ, ㄷ  
 54) ㄱ, ㄷ  
 ☞ Zola Guide 제시문이 '유학'이 아니라 '도가'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개념과 독해력이 필요함. ㄱ은 동양 사상이면 동의할 내용임. ㄹ은 도가에만 해당함.
- 55) ⑤  
 ☞ Zola Guide 같은 장자, 을은 노자. ㄴ은 노자가 아닌 장자 얘기임.
- 56) ③ 

9%	9%	71%	2%	9%
----	----	-----	----	----
- ☞ Zola Guide 도가(갑)가 유가(을)를 비판하는 문제임.
- 57) ① 

74%	9%	9%	4%	4%
-----	----	----	----	----
- ☞ Zola Guide 우리나라 코로나 1번 환자(중국인)가 퇴원하면서 의자인심(醫者仁心)이라는 감사 편지를 쓴 것이 기억나서 선별해 봤음. 이 제시문이 그것과 관련되는 제시문임. 님들이 아래 글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음.  
 [서울신문] “의자인심(醫者仁心)” 신종코로나 1번 환자 오늘 퇴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6500052>
- 58) ⑤  
 59) ① 

60%	17%	6%	10%	7%
-----	-----	----	-----	----
- ☞ Zola Guide ① 불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봄. 그게 연기법이고 공(空)임. 12쪽에 인용된 '천재' 교과서의 불교 설명 부분을 확인할 것.
- 60) ⑤ 

2%	6%	5%	3%	84%
----	----	----	----	-----
- ☞ Zola Guide ② 동양 사상의 공통점에서 바나나 선지 설명을 하였음. 강의 다시 확인해 볼 것. 불성 '생성'이 아님.
- 61) ④ 

7%	3%	5%	83%	2%
----	----	----	-----	----
- 62) ②  
 ☞ Zola Guide 이 정도면 생운으로도 충분히 '답'은 나옴.
- 63) ⑤  
 ☞ Zola Guide ① 갑: 만물이 불변함을 깨닫지 못한 데서 고통이 발생한다. ⇒ '불변'='실체'임. 불가는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 즉 만물이 불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함. 불변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해서 고통이 생김.
- 64) ③, ④, ⑤, ⑥, ⑦

☞ Zola Guide 틀리면 반드시 강의나 필기 다시 확인해야 함.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도덕 원리를 응용하는 것임!

65) 답은 아래. 틀리면 반드시 강의 확인 또는 질문할 것!

- ① 행복의 원리는 준칙을 제공할 수 있다.(18-수능, 20-6, 윤사) 000
- ② 행복의 원리는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18-수능, 20-6, 윤사) 000
- ③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8-수능, 윤사) 000
- ④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18-수능, 윤사) XXX
- ⑤ 보편적 법칙에 맞는 행위의 준칙을 따라야 한다.(21-6, 윤사) 000
- ⑥ 쾌락의 추구는 개인의 행위의 준칙이 될 수 있다.(21-6, 윤사) 000
- ⑦ 의무에 맞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간주해야 한다.(20-9, 윤사) XXX
- ⑧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을 설정해야 한다.(19-수능, 윤사) XXX
- ⑨ 선의지에 따른 행위가 현세의 행복을 향상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19-수능, 윤사) 000
- ⑩ 도덕 법칙은 무조건 따라야 할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19-6, 윤사) 000
- ⑪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23-수능, 윤사) 000
- ⑫ 보편적 도덕 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22-수능, 윤사) XXX
- ⑬ 정언 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 법칙이 된다.(24-수능, 윤사) 000

66) ②

67) ㄱ, ㄷ

68) ⑤

☞ Zola Guide 정답률 48%임. 도대체 왜???

69) ①

70) ㄱ, ㄷ, ㄹ

71) ③ 

14%	7%	48%	12%	18%
-----	----	-----	-----	-----

☞ Zola Guide 의외로 정답률이 낮아서 놀랐음. 6평 (윤사) 문제인데 고3들은 9평 이후에 급 사탐 성적이 오르는 경향이 있음. 대신 국수(영)에서 뺑구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함!

72) ㄴ, ㄷ

☞ Zola Guide 정답률 45%임. 도대체 왜???

73) ㄴ, ㄷ, ㄹ, ㅁ

☞ Zola Guide ‘ㅁ’은 21-수능 선지임. 공리주의자들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적용하면 됨. 칸트는 인격성(존엄성)을 적용하면 됨. 인격성은 절대적 가치로서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임.

74) ㄴ, ㄷ, ㄹ

☞ Zola Guide 정답률 35%임. 도대체 왜???

75) ④ 

2%	2%	18%	74%	2%
----	----	-----	-----	----

☞ Zola Guide 조사한 기관마다 정답률 편차가 심한 문제이다. 어떤 곳에서는 정답률을 56%로 추정하였다. 어찌되었건 ③은 답이 아니다. 의무‘에 맞더라도’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면 도덕적 가치는 없다. 그리고 ④는 동어 반복이다. ‘보편화 가능한’ 준칙이 곧 ‘법칙’이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언급하였다. 윤사에서 함정, 킬러 선지들까지 분석해서 강의를 하였으므로 여러분은 Zola를 믿고 따라오길 바란다!

76) ④ 

8%	5%	24%	47%	16%
----	----	-----	-----	-----

☞ Zola Guide <보기> ㄷ 선택하신 분들 [Zola 생윤 O-바나나 제거 특강] 다시 들길 바람. 개념 강의(Zola 생윤 1)도 잘 보길 바람. ㄷ 관련 바나나식 풀이를 오르비 및 유튜브에 올렸음. ‘23 9 13 윤사(zola 바나나 제거)’ 검색해 보셈.

<https://www.youtube.com/watch?v=LYFhCH2Evr8>

77) ㄱ, ㄴ

☞ Zola Guide 자연법 윤리의 하나인 스토아 학파의 글임. 윤사를 하지 않는 생윤 선택자는 풀기 힘들 수는 있음. 제시문에서 ‘자연’을 중심으로 내용 파악하길 바람.

78) ㄱ, ㄷ

☞ Zola Guide 자연법 윤리의 하나인 스토아 학파의 글임. 제시문의 키워드 중에서 ‘우주’와 ‘이성’이 핵심임. 이래도 잘 모르겠으면 수업 필기 내용을 꼭 보셈. logos 근처에 필기되어 있을 거임.

79) ① 

57%	15%	6%	5%	15%
-----	-----	----	----	-----

☞ Zola Guide 자연법 윤리인지 알면 쉽게 풀림. 제시문을 보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음. 자연법 윤리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자유임.

80) ①

☞ Zola Guide 독해 또는 생윤 개념으로 맞출 수 있음!!

81) ㄱ, ㄴ, ㄷ, ㅁ

82) ①

☞ Zola Guide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 ② 후천적 덕 ③ 실천적 지혜-지성적 덕 ④ 덕윤리-행위자의 성품 중시 ⑤ 어떤 행위(살인)이나 감정(질투) 등은 그 자체로 나쁜 것임. 품성적 덕이 안 됨.

83) ㄷ

84) ③

2%	2%	80%	4%	11%
----	----	-----	----	-----

85) ①

86) ⑤

87) ②, ③

88) ㄱ, ㄴ, ㄷ

89) ③

90) ㄱ, ㄴ, ㄷ

91) ③

☞ Zola Guide 정답률 35%임. 맨날 배려 윤리가 정의 윤리 비판하는 것만 풀다가 거꾸로 된 문제(정의 윤리가 배려 윤리 비판하는 내용) 푸니까 틀린 것임. '비판'형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풀어야 함. 단, 겁 먹을 것 없고 Zola가 사고하는 연습 충분히 시키니까 걱정말고 따라오시면 됨.

92) ㄱ, ㄴ, ㄷ

93) ①

94) ②

1%	77%	3%	18%	1%
----	-----	----	-----	----

95) ⑤

3%	7%	4%	7%	79%
----	----	----	----	-----

96) ㄱ, ㄴ, ㄷ, ㄹ

☞ Zola Guide ㅇ은 선함'과' 악함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고치면 정답이 됨(23 ebs 수완). 선보다 악의 인식이 쉽다는 것이지, 선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님.

ㅈ은 미래세대는 의존자이고 명령자이며, 현세대는 권력자이고 의무자이다.(21-수능-11 제시문 필수 확인!) 요나스의 의도를 알면 암기가 쉬워지긴 함. 현세대가 과학기술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현세대가 의무의 주체가 됨. 미래세대는 현세대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의 달라짐. 따라서 이들은 현세대에 의존하는 존재가 됨. 그래서 이들 미래세대는 현세대에게 예방적 책임(자신들의 존속)을 져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음.

97) ㄱ, ㄴ, ㄷ, ㄹ

98) 사실 판단(소전제) : 내가 나의 몸을 처분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이다.

99) 도덕 원리(대전제) : 여성의 선택 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100) 도덕 판단(결론) :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옳지 않다.

10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

102)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은(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103)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104) 태어날 자녀를 대상으로 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05) 사실, 도덕(순서 상관없음)

106) 연역

107) X

108) X

109) X

110) X

111) X

112) X

113) X(비논리적-흑백 논리임. 미래엔 교과서 예시자료)

114) ㄱ, ㄴ, ㄷ(22 ebs 수록 참고했음)

115) ①, ②, ③, ⑤(23 ebs 수록임)

☞ Zola Guide 대전제-㉠도덕 원리, 소전제-㉡사실 판단, 결론-㉢도덕 판단임. ④ ㉢은 사실 판단이므로 사실 관계(참·거짓)를 밝히는 것임.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오류 점검은 결론에서 행하면 됨.

116) ②, ③, ④, ⑤, ⑥, ⑦, ⑧

117) ④

☞ Zola Guide 가로열쇠 A: 토의(검'토'하고 협'의'함) B: 여론

118) ④, ⑥(22~23 ebs 활용)

☞ Zola Guide 한자는 순서대로 '주일무적(主一無適)', '정제엄숙(整齊嚴肅)', '상성성(常惺惺)'임. 유가 사상으로 풀면 됨.

119) 자연(기)의 흐름으로 봄

120) 살아 있을 때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이 많음

121) 삶과 죽음이 차별없음. 순환의 과정

122) ③

☞ Zola Guide 의도적 행위=업(業). 오답 선지 중에는 어느 한 쪽 입장은 불분명한 경우도 있으니 신경쓰지 말 것. [오답 설명]

①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 유가 입장임. 불가와 도가는 삶과 죽음을 분별하지 않음.

- ② 업(業)이 소멸하면 생사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 불가의 입장임. 도가는 부정함.
- ④ 생명이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가?  
 ⇒ 바나나 선지임!! 불가, 도가 모두 긍정.
- ⑤ 삶은 기(氣)의 생성, 죽음은 기의 소멸로 보아야 하는가?  
 ⇒ 조심! 해당사항 없음. 도가에 따르면 죽음은 기의 흩어짐(소멸X), 삶은 기의 모임(생성X)임.
- 123) ①, ⑥(22 ebs 수특/수완 참고했음)
- 124) (순서대로) 에피쿠로스, 도가(장자), 에피쿠로스, 도가(장자)
- 125) ③, ④, ⑤, ⑦(22 ebs 수특/수완+Zola가 만든 선지)
- 126) 나-생명을 잉태한 여성, 바이올리니스트-태아, 음악 동호회 사람들-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생명을 잉태하게 만든 사람
- ☞ Zola Guide 원래 이 제시문은 톰슨(Thomson, J. J.)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비유이다. 그에 따르면 태아는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여성은 태아를 도와야 할 아무런 도덕적 의무도 없다.
- 127) 글A의 경우 사회·문화적인 성(후천적인 성)을 설명하는 사례임. 글B의 경우 남녀 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자연적 성(선천적 성)을 설명하는 사례임.
- 128) ☞ Zola Guide 그림 보는 법을 알면 그만임. 외울 필요 없음. 아래 표 참고
- | 사랑의 유형     | 친밀감 | 정열 | 헌신 |
|------------|-----|----|----|
| (1) 좋아함    | ○   | ×  | ×  |
| (2) 도취적 사랑 | ×   | ○  | ×  |
| (3) 공허한 사랑 | ×   | ×  | ○  |
| (4) 낭만적 사랑 | ○   | ○  | ×  |
| (5) 열빠진 사랑 | ×   | ○  | ○  |
| (6) 우애적 사랑 | ○   | ×  | ○  |
| (7) 성숙한 사랑 | ○   | ○  | ○  |
- 129) ㄱ-책임, ㄴ-존경/존중, ㄷ-지식(이해)
- ☞ Zola Guide 기출로 출제된 부분을 활용하여 지식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임. 이런 것을 놓치면 10년에 1번 통수 맞게 됨. 위 자료는 교사용 지도서 자료를 활용한 것임.
- 130) ①, ②, ③, ⑥, ⑦, ⑧, ⑩, ⑬, ⑱, ⑲
- ☞ Zola Guide ⑮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자기애’이다. 자기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양립 가능하다. 그러나 이기심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 ⑳ 생명을 준다는 것이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131) ③, ⑤
- ☞ Zola Guide 여러분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문에 나타난 효의 특징을 묻는 문제임! 독해 문제임.
- 132) ①, ④, ⑥, ⑧, ⑩, ⑫, ⑮
- ☞ Zola Guide ㄱ은 효(孝), ㄴ은 인(仁)임. 선지 ⑮는 21-수능-8임.
- 133) ①, ④, ⑤, ⑩, ⑫, ⑬, ⑭, ⑯, ⑲
- ㉑ 형제애의 근원은 효의 근원과 서로 다르다. XXX.
- ☞ Zola Guide 형제애 즉 우애의 근원과 효의 근원은 모두 인(仁)이다.
- 134) ㄱ. 21-수능
- 135) 없음. 마르크스, 14-수능
- 136) 모두, 플라톤, 14-수능
- 137) 모두!! 플라톤임.
- 138) ㄱ, ㄷ.
- 139) ㄷ. 마르크스! 15-9
- 140) ㄱ, ㄴ. 18-수능
- 141) ㄱ, ㄴ, ㄷ. 마르크스. 18-6
- 142) 없음. 칼뱅. 17-6
- 143) 모두!! 순자. 16-9. 단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지식이 필요없는 문제였음.
- 144) ㄴ. 공자. 17-6
- 145) ㄱ, ㄴ, 순자, 15-6+22-9
- 146) ㄴ, ㄷ, ㄹ. 순자. 15-수능. 단,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ㄱ’을 확실하게 독해할 수 있음
- 147) ㄴ, ㄷ. 순자. 24-9
- 148) ㄱ. 20-9
- 149) ㄱ. 19-6
- 150) ㄷ, ㄹ. (가)는 플라톤, (나)는 정약용임.
- 151) ④

☞ Zola Guide 갑(정약용)은 국어로 풀면 됨. 단, 을(맹자)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함.

⑤ 갑, 을은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 유가의 여민동락(與民同樂)을 국어로 풀어서 서술한 선지임.

152) ⑤

153) ⑤

154) ④

☞ Zola Guide ㉠에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적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다.’가 들어감. 따라서 반론은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적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가 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가 제시되면 됨.

155) ⑤

156) ②

3%	85%	4%	4%	4%
----	-----	----	----	----

☞ Zola Guide 바나나 제거 특강(Zola 생운 O)에서 다룬 문제임.

157) 개인윤리-①, ⑧. 사회윤리-나머지 모두

158) [올은 내용] ①, ③, ⑩

159) ㄱ, ㄴ, ㄷ, ㄴ

160) 아래 확인

[14-9-15, 78%] 사회 부정의는 외적 강제력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O
[14-수능-19-ㄷ, 47%]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O
[14-수능-19-ㄹ, 47%]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X
[15-수능-19-ㄱ, 41%]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	O
[15-수능-19-ㄹ, 41%]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O
[16-9-6, 79% // 20-9-6, 77%]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을 권고한다.	O
[17-6-10-ㄷ,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하다.	O
[17-6-10-ㄹ,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하다.	O
[17-수능-5, 72%]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다.	O
[18-수능-13, 89%]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X
[19-6-13, 62%] 집단 간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O
[19-수능-3, 54%]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
[20-수능-12, 91%]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 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O
[20-수능-12, 91%]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O
[20-수능-12, 91%] 인간의 자기 보존의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O
[20-수능-12, 91%] 도덕적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O

☞ Zola Guide 도덕적 계몽으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집단 갈등을 완화시킬 수는 있음.

161) ☞ Zola Guide 답은 모두 ‘모름(알 수 없음)’임. 그냥 님들의 생각일 뿐임. 그리고 평가원은 님들의 생각에 관심 없음. 강의를 반드시 들길 바람!!

162) 모두 O

163) ①

164) ㄷ, ㄹ

165) ④

21%	7%	6%	65%	1%
-----	----	----	-----	----

☞ Zola Guide 국어로 독해 가능함. 제시문에서 ‘가령’ 즉 예를 든다는 것은 예를 통해 결론에 도달해 보라는 것이다. 즉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임. 우리가 알고 있는 롤스의 절차적 정의를 활용한다면 게임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는 (균등하든 안하든) 정의롭다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는 것이 정답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선지가 2개 있다. ①과 ④. 그런데 ①은 균등 분배인데 제시문에 근거해 보면 게임의 결과가 균등한 분배가 될지는 모른다(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지식에 근거해 봐도 롤스가 균등 분배를 주장하진 않았다(이건 생운 선택자도 알고 있는 내용임). 결국 제시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핵심’ 개념으로 문제가 풀림. 그런데도 운사 선택자들의 정답률이 65%라는 것은 그만큼 독해를 안 한다는 것임. 하나 더. 제시문의 앞 부분에 공리주의는 독립된 기준이 있지만 살라 살라 그리고 자기의 순수 절차는 공리주의와는 다르다고 함. 따라서 순수 절차는 독립된 기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함. 결국 이 문제는 국어로 풀 수 있게끔 출제하였음.

[제시문과 선지] 나는 공리주의가 사회의 기본 구조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한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떠한 분배 상태가 행복의 최대 총량을 산출하는지를 판단할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의의 체제는 우연한 여건들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반면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은 공리주의의 이러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게임이 자발적으로 성립되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등 공정했다면 게임이 끝난 후 게임의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나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이 의미하는 것은 [ ㉠ ]는 것이다.

- ① **공정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균등한 분배를 보장받을 수 있다
- ② 정의로운 결과를 판단할 기준은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절차는 없다
- ③ 공정한 절차를 따르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 ④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 ⑤ 결과의 공정성을 결정할 기준도, 공정한 결과를 보장할 절차도 없다

166) 가, 나, 다, 라

167) ⑤

168) ② 

1%	82%	1%	4%	9%
----	-----	----	----	----

169) ①

170) ③ 

6%	26%	46%	7%	13%
----	-----	-----	----	-----

171) 가, 나, 라

172) 다, 라

173) 가, 나, 라

174) 가, 나, 라

175) 나, 라

176) 가, 나, 라

177) ③

☞ Zola Guide (A) 정직, (B) 자본주의. 그래서 남들은 '정의(justice)'에 대한 선지를 고르면 됨.

178) ⑤

179) ⑤

180) ④

181) ④ 

15%	5%	6%	68%	7%
-----	----	----	-----	----

182) ②

183) ②

184) X

☞ Zola Guide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할 때 생기는 문제임. 제시문은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가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임. 따라서 제시문과 역차별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

185) X

☞ Zola Guide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 즉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한다. 즉 장애인을 보호하는 반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186) 답 (1) O, (2) O, (3) O, (4) O

☞ Zola Guide 독해법을 익혀야 응용 선지가 풀림. 이런 선지를 틀리는 것은 개념 부족이 아님. 독해법은 Zola 강의 확인하셈!!

(1) 처벌의 해악이 처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 사형 1명 살인 범죄 2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함.

[ 사형 2명 살인 범죄 1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 고통 정도 10 과락 정도 50]이면 범죄를 저지르겠지. 예방효과 없음.

[ 고통 정도 10 과락 정도 5]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예방효과 있음.

(3) 형벌의 해악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

[범죄자의 고통]이므로 (2)와 같은 내용임.

(4)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

[ 사형 1명 살인 범죄 2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함. 즉 (1)과 같은 문장임.

187) 모두!

188) ③ 빼고 모두 옳음! ③만 틀렸음!

189) 다

190) 가, 나, 다, 라

191) ②

192) 가, 라

193) ②

194) 나, 다

☞ Zola Guide 라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OOO

195) 가, 나

196) 가, 다, 라

197) ④

198) ㄱ, ㄴ, ㄷ, ㄹ, ㅁ

199) ③, ⑤

200) ㄷ, ㄹ

201) ㄴ, ㄹ

☞ Zola Guide 고대 서양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행복=덕의 실현)임. 서양 윤리 이론(교재 번호 1-3)에서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202) ㄱ, ㄴ, ㄷ, ㄹ

☞ Zola Guide 같은 본성론(아리스토텔레스), 을은 헤택론(홍)임. 개념과 독해로 풀이가 가능함.

203) ③

204) ②

☞ Zola Guide 같은 로크, 을은 루소임.

205) ② 

2%	74%	15%	4%	2%
----	-----	-----	----	----

☞ Zola Guide 같은 로크, 을은 루소임. but(벗뜨) 님들은 사회계약론이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답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함.

206) ④ 

8%	7%	16%	60%	9%
----	----	-----	-----	----

☞ Zola Guide 같은 아리스토텔레스, 을은 로크임. 생각보다 정답률이 낮아서 Zola가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남.

207) ㄱ, ㄹ, ㅁ

208) ① 

60%	10%	9%	15%	6%
-----	-----	----	-----	----

209) ① 

64%	21%	2%	10%	3%
-----	-----	----	-----	----

210) ④ 

5%	10%	15%	63%	4%
----	-----	-----	-----	----

☞ Zola Guide 같-아리스토텔레스, 을-로크, 병-롤스임. ④ 롤스의 경우 시민 불복종할 때 저항권의 개념을 강의하니 참고할 것.

211) ③

☞ Zola Guide 같-아퀴나스, 을-흠스. 아퀴나스(같)의 경우 서양 윤리 이론(주제 번호 1-3의 의무론)에서 다루었고 그 지식으로 풀 수 있음. 선지 ⑤는 몰라도 될 듯(아퀴나스는 모든 법의 근거를 영원법으로 봄).

212) ③ 

3%	2%	86%	3%	5%
----	----	-----	----	----

☞ Zola Guide 같은 노자(도가), 을은 공자(유가)임. 동양 사상(1단원 내용)에 충실하면 쉽게 맞출 수 있음. 틀린 분들은 1단원 내용(교재 번호 1-2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것.)

213) ⑤ 

22%	14%	9%	12%	43%
-----	-----	----	-----	-----

☞ Zola Guide 같은 노자, 을은 묵자, 병은 한비자임. 풀이법은 크게 두 가지임. (1) 우선 같과 을은 법과 술을 강조하지 않음. 법과 술을 강조하는 것은 한비자임. 그런데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함. 변화시키지 않음. 혹은 (2) 한 번에 같, 을, 병 모두 본성 변화를 꾀하지 않음으로 해서 풀 수도 있음.

214) ⑤

☞ Zola Guide ⑤가 바나나 선지임. 패권주의는 '힘 또는 무력으로 억압하는 정치'를 말함. But 같, 을, 병 사상가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도록 공부해둘 것. 같은 노자(도가), 을은 묵자, 병은 맹자(유가)임.

215) ④ 

3%	12%	2%	79%	4%
----	-----	----	-----	----

☞ Zola Guide 같은 도가, 병은 유가 정도인 것만 알면 됨. 단, 을은 한비자임을 알아야 함. 참고로 같은 노자, 병은 맹자임.

216) ㄱ, ㄷ, ㄹ, ㅁ, ㅂ

☞ Zola Guide 사상가는 묵가. ㄴ은 유가의 단계적·점진적·확장적 윤리임.

217) ㉠, ㉡, ㉢, ㉣

☞ Zola Guide 같은 한비자(법가), 을은 순자(유가, 성악설)이다. 두 사람은 모두 성악설을 주장하였지만, 순자는 도덕적 교화의 가능성을 긍정하였고 한비자는 부정하였다. ㉠ 한비자는 이기적 욕망을 본성으로 보았다.

218) ㄱ, ㄴ

☞ Zola Guide 같은 공자(유가), 을은 노자(도가)임. 유가와 도가로 풀면 됨. ㄹ은 님들 입장에서는 말장난일 듯. 같 제시문의 첫 문장이 함정 문장임.

219) ㄱ, ㄴ, ㄹ

☞ Zola Guide 'ㄷ' 조심. 모든 인권은 정의로운 분배에 관심을 가짐. 다만, 정의로운 분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질 것임.

220) ①, ③, ④, ⑤

221) ③

222) ⑤

☞ Zola Guide 을이 '싱어'임. 싱어가 롤스의 '공유된 정의관'을 비판하는 내용임. 잘 알아둘 것. 자료교재의 '참고 2'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임.

223) ①

☞ Zola Guide '문장'으로 장난을 쳤음. 이런 선지 조심해야 함.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XXXX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위반한' 법이나 정책이다. OOOO

224) 가, 다

☞ Zola Guide <보기> <이 해석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중의적 문장)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바꾸었음. [원 문장] <. 을: 모든 법의 준수가 불의를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5) 가, 다, 라

226) 가, 나

☞ Zola Guide 롤스의 '자연적 의무' 알아둘 것!

227) ⑤

☞ Zola Guide 세 사상가 모두 '다수결'이 기준이 아님.

228) 가, 나, 다

229) 가, 나, 다, 라, 바

☞ Zola Guide 갑-로크, 을-롤스

230) 예) 성찰적 이성

231) 이 제시문은 과학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반론이다. 과학 기술에 따라 그 자체로 가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32) ④

233) 요나스라면 '칼'과 달리 '원자폭탄'은 전지구적이며 먼 미래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칼이 지닌 위험성과 원자폭탄이 가진 위험성은 전혀 다르다고 대답할 수 있다.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 즉 장기적이면서 전지구적인 위험이 생겼다고 보고 기존의 윤리로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 즉 책임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234) ⑤ 

2%	1%	2%	2%	93%
----	----	----	----	-----

☞ Zola Guide 독해 문제임. 과학 기술의 부자연스러움(강제성)에 대한 글로 이해하면 충분할 듯

235) 나, 라

☞ Zola Guide 갑은 하이데거, 을은 야스퍼스임. 단, 사상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은 가치 개입성, 을은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을 독해할 수 있는 독해력과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의 개념을 알면 됨.

236) 전자정보기술이 민주주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빠름-오판, 단순, 고립)을 줌

237) 다, 라

238) 데이터 스모그, 정보의 홍수, 무의미한·불필요한 정보의 범람 등등

239) ④ 

1%	1%	1%	95%	2%
----	----	----	-----	----

240) 갑-가, 나, 을-가, 나

☞ Zola Guide 갑과 을 모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임. '을'을 요나스로 착각하는 바나나들이 많음!

241) ①, ②.

☞ Zola Guide ③은 무조건 오답. 수업에서 반드시 확인할 것!

242) 가, 나, 라, 마

243) ①, ④

☞ Zola Guide 개념과 독해가 함께 활용되면 풀 수 있음

244) ⑤

☞ Zola Guide 선지 ②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음!!!! 선지 ②를 골랐든지 헛갈리면 zola 생운 0(무료 특강)을 꼭 뜯길 바람!

245) 생태 중심주의

☞ Zola Guide 레오폴드의 글임. 그러나 레오폴드라는 지식으로 푸는 것이 아님. 생태 중심주의를 알 수 있는 독해 point가 있음. 강의에서 확인할 것!

246) ④

☞ Zola Guide 개념형 독해 연습용으로 정말 좋은 문제임. [소나 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울창한 삼림을 베어 목초지로 조성해도 괜찮다]에서 이 입장은 소·말과 삼림·목초지 사이에 경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입장은 감정(동물) 중심주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47) ②

☞ Zola Guide 정답률 28%임. 왜????

248) 가, 나, 다

249) ⑤

☞ Zola Guide 바나나 연습용임.

250) ④

251) 다, 라

☞ Zola Guide 가이 바나나 연습용임. 왜일까? 강의에서 확인할 것!!

252) ①

☞ Zola Guide 을 사상가를 테일러 혹은 생명 중심주의로 파악한 분들은 생태 중심주의 강의 다시 확인하세요~~

- 253) 나, 다, 르
- 254) 가, 르
- 255) 인간/칸트
- 256) 생태/레오폴드
- 257) 인간/칸트
- 258) 생태/몰라도 되는 사상가임. 독해를 할 수 있으면 됨.
- 259) 인간/칸트
- 260) 동물/레건
- 261) 인간/패스모어
- 262) 생명/테일러
- 263) 동물/싱어
- 264) 인간/칸트
- 265) 동물/싱어
- 266) 동물/레건
- 267) 생명/테일러
- 268) 인간/아퀴나스
- 269) 생명/테일러
- 270) 생태/레오폴드
- 271) 동물/싱어
- 272) 생태/레오폴드
- 273) 인간/칸트 ⇒ 바나나 제거 특강에서 독해법 강의했음.
- 274) 생태/레오폴드
- 275) 생명/테일러
- 276) 인간/칸트
- 277) 동물/레건
- 278) 생태/레오폴드
- 279) 동물/싱어
- 280) 인간/칸트
- 281) 생태/레오폴드
- 282) 동물/싱어
- 283) 생태/레오폴드
- 284) 동물/싱어
- 285) 인간/칸트
- 286) 도표 참고

선지	인간	감정	생명	생태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	○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의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		○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	○	○
인간이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본래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	○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	○
인간에 대한 의무 외의 다른 도덕적 의무는 없다.	○			
모든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	○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	○	○	
종(種)이 다른 개체를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	○	○

- 287) 현재의 경제·산업에 제한이 필요함. 자연 보호가 필요함. 지구 자원은 유한함.
- 288) ①
- 289) 가, 나
- 290) ㉠㉡㉢
- A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임. A는 생태 지속 가능성의 범위에서 환경 개발을 추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으며, 개발과 보전을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실행하자는 것임.
- 291) 가(예술의 자율성) // 나, 다, 라(예술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봄)
- 292) Zola Guide 간단 비교표임. Zola의 독해임. 핵심어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참고할 것.

	윤리(선)	예술(미)
공통점	자유(자유), 무관심성	
차이점	외면	내면
	체형 전(전제)	체형 후(결과)
	사고	느낌
	간접 확인	직접 인식

293) ①, ③, ④, ⑥

294) ①, ③, ⑥

295) ④

296) ④

☞ Zola Guide 선지 ② 오답률이 약 40%임. 제시문 갑 사상가가 '순자'임. 그러면 순자는 본성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을 '변화'시켜야 함. 본성 '함양'이 틀린 것임. 하나 더 독해로도 풀림. 아래 설명 참고.

● 제시문: ... **성정(性情)의 변화**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며 ...

● 독해: **성정(본성) '변화'**

297) ㄴ, ㄹ

298) ④

299) ③

☞ Zola Guide 갑(위홀), 을(아도르노) 사상가 누구인지 알 필요 없고 독해로 풀면 됨!

300) ①

301) ⑤

☞ Zola Guide 단순 독해(정보 확인) 문제임. 틀리신 분들은 진심으로 조언하건데 'Zola 생운 O-바나나 제거 특강'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었는데 틀렸다면 다시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하지 않는 1회성 수강은 남들의 실력 향상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02) ㄱ, ㄴ

☞ Zola Guide ㄱ은 바나나 선지임. 이런 선지는 고민하면 안 됨!

303) ㄱ, ㄴ

304) 자기 중심적 관점 극복, 자기 문화만 옳다는 편협한 태도 극복, 나와 다른 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필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노력 필요 등등

305) ④

306) ㄱ, ㄷ

☞ Zola Guide 서로 모순되는 2명을 고르는 것이 핵심이다. 모순이 성립하면 둘 중 하나는 오답이기 때문임. 그러면 갑과 을이 모순이 된다. 혹은 을과 병이 모순이 된다. 결국 '을'이 틀렸다.

307) ㄱ, ㄷ

308) 공통점: 종교는 사회적 산물임

차이점: 뒤르케임은 종교의 순기능을 강조하나, 마르크스는 순기능도 결국에는 역기능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함.

309) 신들

310) ㄴ, ㄷ, ㄹ

311) ③

312) ⑤ 

0%	1%	1%	1%	96%
----	----	----	----	-----

☞ Zola Guide 앞의 ebs 문제와 연계한 평가원 문제임. ebs와 연계된다고 해서 ebs를 안 보면 틀리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음.

313) ①

314) ㄱ

315) ⑤

☞ Zola Guide 선지 ①의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서(약 10%) 놀랐음. (1) 제시문 근거 확인이 부족. 독해를 대충함. 제시문에 '다른 어떤 것'이라고 나옴. (2) 혹은 아는 지식을 그냥 들이대서 그러함.

(1) 제시문-선지 연결

[제시문] 인간이 성스러운을 아는 것은 성이 속된 것[俗]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성과 속이 '다름'

[선지] 성스러운 공간은 주위 공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다.

(2) 생활과 윤리 과목의 특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스러움이 드러나면 뭔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 장소는 뭔가 좀 이상하다, 왠지 경건해진다, 왠지 떠들면 안 되겠다.....생운은 별게 없는데 굳이 이런 것을 원전을 찾아봐야 한다면 혹은 '대단한(독특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나나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임. Zola 생운 0 강의를 다시 볼 것!!!

316) ㄱ, ㄴ, ㄹ

317) 갑: 하버마스, 을: 칸트, 병: 하버마스

☞ Zola Guide

- (1) 같은 '나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에서 '담론'임을 확인할 수 있음.  
 (2) 을은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스스로 질문하고'에서 칸트의 '자율'(실천 이성적 존재는 스스로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따름)임을 알 수 있음. 이것이 지식(개념)과 독해의 연결임.  
 (3) 병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규범만이 타당하다'는 것에서 하버마스임을 알 수 있음. 칸트의 정언명령은 타당성의 근거(이유)가 타인들의 동의에 있는 것이 아님.

- 318) ③  
 319) 나, 르  
 320) ⑤  
 321) ②  
 322) ④  
 323) 나, 다, 르  
 324) 가, 르

☞ Zola Guide 같은 '모겐소'라는 현실주의 사상가임. 단, 외올 필요는 없음. 현실주의가 무엇인지 알면 됨. 가의 세력균형 알아둘 것. '현실주의-세력균형'이 한 세트임.

- 325) ⑤  
 326) ③  
 327) 르

328) ④

2%	3%	3%	82%	10%
----	----	----	-----	-----

☞ Zola Guide (가)는 구성주의 입장임. 구성주의가 수능에 출제될지 여부는 ebs 수특/수완에서 다루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329) ③  
 330) ④  
 331) ⑥, ⑦  
 332) 가, 다  
 333) 가, 나, 다

☞ Zola Guide 칸트의 영구 평화론 내용임. 제시문 내용이 왜 세계 단일 국가로는 영구적인 세계 평화가 불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글임.

- 334) ②  
 335) ④  
 336) 가, 다  
 337) ③  
 338) ⑤

☞ Zola Guide ① 국제 연맹은 '하나'임. 하나의 국제 연맹의 범위가 확산되는 것임(점점 가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남).

- 339) 가  
 340) 가, 르  
 341) ⑤

☞ Zola Guide 을은 정의 전쟁론 사상가(알처)임.

- 342) 나, 르

☞ Zola Guide 정의 전쟁론 사상가인 알처임.

343) [민주주의의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 그밖의 자연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기근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야당과 자유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근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하면 됨.

☞ Zola Guide 해외 원조 방법에 대해서는 논쟁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며, 개념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다. 적어도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아두자. 제시문은 교과서에 언급된 롤스의 입장과 상통한다. (롤스가 셴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임.)

- 344) 가, 나, 르  
 345) 다  
 346) 가, 다  
 347) 가, 나, 다, 르(23 ebs 수완 + 23-10교)  
 348) 가, 르

☞ Zola Guide 같은 심어, 을은 노직이라는 특정 사상가이지만 병은 특정 사상가 아님. 의무론의 입장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임. 그래서 발문(문두)에서 '사상가'라고 하지 않았음. ebs 해설에도 병은 의무론으로만 나옴.

- 349) ⑤  
 350) 나, 다

351) 나, 다

352) 가, 나, 다

☞ Zola Guide (가)는 상어. (나)의 갑은 나딩스(배려 윤리), 을은 롤스, 병은 노직임.

353) ㉓

354) 가, 나

355) 가, 다

356) 나, 다, 르

수고하셨습니다!  
믿고 따라오셈!!  
열공+즐공=대박!!!

